https://doi.org/10.5392/JKCA.2019.19.05.001

한국적 집단주의(우리성, we-ness)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Influence of Korean Collectivism(Uri, we-ness)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haviors

양정은
평택대학교 광고홍보학과

Jungeun Yang(jeyang@ptu.ac.kr)

요약

한국인들에게서 보이는 집단주의의 모습은 서양 이론에서 정의한 집단주의(collectivism)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정서, 즉 '우리성(we-ness)'의 개념이 가지는 하부 차원을 규명하고, 이러한 '우리성'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적 집단주의인 '우리성'은 심리적지지, 집단이기주의, 집단회의주의, 개인희생, 집단지향, 정서적 친밀감의 6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크게 긍정적 집단주의(심리적지지, 집단지향, 정서적 친밀감)와 부정적 집단주의(집단이기주의, 집단회의주의, 개인희생)로 나뉠 수 있었다.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가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 집단주의는 건설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부정적 집단주의는 비건설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중심어 : | 우리성 | 한국적 집단주의 | 커뮤니케이션 역량 | 논쟁성 | 언어적 공격성 | 갈등 커뮤니케이션 |

Abstract

It was argued that the collectivism found among Koreans are quite differenct from the collectivism defined by Western theories. The study aims to define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llectivism (Uri, we-ness)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Uri dimensions on variou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haviors. Result found that Uri was composed of six dimensions: Mental support, group-selfishness, group-skepticism, individual sacrifice, group-oriented attitude, and emotional intimacy. The six dimensions were able to be integrated into positive collectivism (mental support, group-oriented attitude, emotional intimacy) and negative collectivism (group-selfishness, group-skepticism, individual sacrifice). It was found that positive collectivism generally influenced on constructive communication behaviors while negative collectivism generally influenced on deconstructive communication behaviors.

■ keyword : | Uri | Korean Collectivism | Communication Comptence | Argumenativeness | Verbal Aggressiveness | Conflict Communication |

I. 서 론

우리는 흔히 한국인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이야기한다. 학연, 지연 등 다양한 연줄로 묶인 집단을 중시하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집단들에 소속되어 살아갈 뿐 아니라, 회사와 같이 연고에 근거하지 않은 집단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988)
접수일자 : 2019년 03월 06일
수정일자 : 2019년 04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25일
교신저자 : 양정은, e-mail : jeyang@ptu.ac.kr

에서도 '한 가족'처럼 지내는 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여, 실제로 '나'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듯,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정서는 일상의 언어 속에도 녹아있다.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특성은 사회 현상 속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IMF 사태 때의 전 국민적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 때의 붉은악마 응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 등은 한국인의 집단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자들은 한국인들이(또는 한국 문화가) 정말 집단주의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인이 집단주의적이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성향을 일반적인 '집단주의(collectivism)'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집단주의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가족주의, 연고주의, 민족주의, 애국주의, 온정주의, 대세주의 등의 용어들은 모두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다[1][2]. 서양의 이론에서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시 된다는 개념으로,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 집단 구성원들 간의 조화의 중시, 집단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4]. 그러나 연구 결과 한국인들은 집단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목표를 희생하기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과 집단 구성원들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1][2].

한국인의 집단주의가 가지는 이와 같은 독특함은 한국인의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간적접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호하고[5][6], 미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이었으며[7], 미국인보다 커뮤니케이션 회피 성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집단주의의 모습을 보였다[8].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 미국인들보다 언어적 공격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9][10].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일반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징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 학자들은 한국인들의 집단주의가 서양의 집단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차원과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때로는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11-13]. 그러나 한국인들의 집단주의의 어떠한 요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물다. 조직학적인 관점에서 '정'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4], '체면'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있었으나[15][16], 한국인의 집단주의 정서, 특히 '우리성(we-ness)'은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한국적 집단주의 정서, 즉 '우리성'의 개념이 가지는 하부 차원을 규명하고 그 구성요소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우리성'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우리성'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성의 하부 차원이 커뮤니케이션 역량, 커뮤니케이션 논쟁성/언어적 공격성, 갈등 커뮤니케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II. 선행연구

1. 집단주의-개인주의(IND-COL) 연구

한 문화권이 가지는 문화적 특징을 설명하는 변수로써 가장 많이 연구된 분석틀은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이며[17], 이 중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연구는 홉스테드(1984)의 문화이론이다[4][12]. 홉스테드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해 부과된 의무와 규범에 의해 동기화되고, 개인적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에 우선을 두며, 집단 구성원들과 자신의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18].

그러나 홉스테드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비서구권 국가의 문

화를 설명하는 데에 큰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집단주의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홉스테드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으로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19].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트리앤디스(1995)는 홉스테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체계에 수평-수직 차원을 도입하였다[21]. 수평-수직 차원은 홉스테드의 문화이론 중 권력거리(power distance)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차원을 추가함으로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문화 내의 '권위수용'의 정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18].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 집단 성원들 간 위계질서가 확고하며 권위에 복종하며, 집단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하는 집단 일체감을 중요시한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며,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지만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며,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한다[21]. 한국을 포함한 집단주의 문화에서 보여지는 집단에 근거한 정체성, 집단소속감 및 연고주의, 내외집단에 대한 엄격한 구분과 차별, 자아의 모호한 경계 등은 수평적 집단주의에 가까운 개념들이다[22].

트리앤디스의 수직-수평 집단주의 개념은 기존의 집단주의 개념보다 정교화된 모델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홉스테드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이론이라는 한계를 가진다[12]. 오이저만과 동료들은 83편의 IND-COL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많은 연구결과들이 홉스테드의 이론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23].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개인주의 문화권 국가인 미국의 경우 대표적 집단주의 문화권 국가로 구분되었던 일본만큼이나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또 다른 집단주의 문화권 국가인 한국의 경우 미국 못지않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23].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학자들은 집단주의가 사실은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집단주의 내에 다른 차원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4]. 집단주의 척도에 나타난 집단주의의 구성요소는 크게 자신과 집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집단 내에서 자신과 집단 내의 구성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뉜다[25]. 예를 들어 미국인들의 경우 '집단에의 소속감'과 관련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인들의 경우 '집단 내 타인과의 관계성'과 관련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일본인의 경우 '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중국인의 경우 '내집단 내 구성원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비슷한 맥락에서 브루어와 첸(2007)은 집단주의를 집단중심 집단주의(group-based collectivism)와 관계중심 집단주의(relational collectivism)로 구분하였다. 집단중심 집단주의는 전반적으로 집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며, 집단의 규범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관계중심 집단주의는 관계성을 강조하며, 상호협력, 상호의존,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의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27]. 집단중심 집단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문화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분명하며 집단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계중심 집단주의는 주로 동양 문화권에서 발견되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개인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적인 특징을 보인다[24]. 즉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은 집단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과 친밀한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관계중심 집단주의에 해당한다[25].

2. 일반(etic) 문화이론의 한계

이처럼 학자들이 기존 집단주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집단주의 내의 다양한 차원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 문화적 접근(etic)은 한 문화권의 고유한 문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국의 집단주의는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은 서양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반 문화적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3].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병폐라고 일컬어지는 연고주의의 경우에도, 그 원인이 한국인의 관계중심 집단주의 때문인지, 집단주의적 정체성 때문인지, 이익집단에서 나타나는 이기적 목적 때문

인지 확실하지 않다[25]. 한국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집단주의가 한국인들의 의사소통방식, 갈등관리방식, 협상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문화변수(emic)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3][27]. 다음에서는 한국인의 대표적 집단주의 개념인 '우리성(we-ness)'에 대해서 살펴본다.

3. 한국인의 집단주의에 대한 토착문화적(emic)접근: 우리성(we-ness)

선행연구에서 한국인의 집단주의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가족주의[2][29], 공동체지향의식[29], 연고주의[1][2][30], 인정주의[1][2], 국가중심주의/민족주의 [2][29] 등, 한국인의 집단주의는 서양의 집단주의로 설명될 수 없는 다른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민봉과 심형인(2013)은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으로 공적자아의식, 집단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위계성 중시, 결과 중시의 다섯 가지 특성을 들고 있는데, 이 중 집단중시와 온정적 인간관계가 집단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개념이라고 보았다[12]. 집단 중시 성향은 때로는 편안함이나 안전함의 원천이 되는 반면 때로는 집단 동조에 대한 압력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서양의 집단주의가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더 성과를 낸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반면, 한국의 집단중시 특성에는 그러한 부분과 함께 혼자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에 의지하여 생활할 때 개인의 목표 달성이나 이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용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12].

또한 한국인의 집단주의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온정적 인간관계는 정, 타인에게 관심, 배려, 조화, 협동, 겸손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정이라는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온정적 인간관계는 언뜻 서양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유적 관계(교환적 관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써)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 수 있으나, 온정적 인간관계를 교환적 관계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환적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선행적 기반요소로 본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금전적 이해관계와 같은 교환적 관계에서도 상대방과 최소한의 친근함과 정서적 편안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온정적 관계가 충족될 때 실질적 교환관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온정적 인간관계는 내집단 구성원들 간에 자주 나타나지만, 처음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반영되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가족관계나 고향, 학교 등의 사적인 질문 등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고 정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12].

심리학 분야에서는 '우리성(we-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인의 집단주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리성'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집단주의 정서이다[31]. 서양의 집단주의가 구성원들의 공통점과 자율성에 근거한 개인화된 집단주의(individuated collectivism)인 반면[32],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는 상호의존성과 정(情)이라는 정서에 기반한 관계적 집단주의(relational collectivism)이다[31]. 한국인들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집단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며, '우리' 관계가 형성되면 정(情)이 교류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11]. 한국인들은 처음 만나면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통점을 찾는 것은 '우리'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객관적 단서(objective cue)'를 찾기 위한 노력이며, 우리 관계가 형성되면, 비로소 정(情)을 나눌 수 있게 된다[3]. 우리성의 구성요소는 크게 정서적 우리성과 도구적 우리성으로 나누어진다[31]. 정서적 우리성이 우리 의식을 통해 느끼게 되는 정서적 만족감(정과 같은)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다면, 도구적 우리성은 내집단을 통해 얻게 되는 기능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3].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자면 일반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집단주의는 관계중심 집단주의의 성격을 가지며, 토착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집단주의는 '우리성(we-ness)'이라는 단어로 정의되고 있다[1]. 이때 우리성 내에는 정(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인 측면

1) 선행연구에서 한국적 집단주의는 대체로 '우리성(we-nes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집단주의와 '우리성'이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온정주의로 일컬어지기도 하는)과 기능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적인 측면(예를 들어 조직우리성과 같은)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 공존한다고 정리될 수 있다.

한국적 집단주의, 우리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인의 집단주의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밝히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 선행연구들은 한국인의 집단주의가 다양한 차원을 가지며, 집단주의가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 또한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인의 집단주의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특히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착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적 집단주의 내에는 가족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며,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도구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적 집단주의인 우리성이 가진 양면적 성격은 한국인들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적 집단주의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수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문화적 특징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특징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장기간 축적되어 왔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학자들은, 서양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 아시아적 관점에서 인간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34]. 김(2002)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현상 중 커뮤니케이션 회피(communication apprehension), 논쟁성향 (approach communication), 갈등 관리 스타일(conflict management styles), 순응(conformity), 거짓말 (deceptive communication), 자기노출(self-disclosure), 침묵(silence) 등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서양과는 다른 동기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communicative competence), 논쟁적/언어적 공격적 커뮤니케이션 (argumentative/verbal aggressive communication) 및 갈등 커뮤니케이션 (conflict communication)과 우리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위 중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선택하는 능력'이자, '상황이 가진 한계 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본인과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상호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5]. 의사소통 역량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루빈과 마틴(1994)이 정의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10대 요소, 즉 자기노출, 역지사지, 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타인지향, 표현력, 지지, 즉시성, 환경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격을 상대에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지사지(empathy)는 상대방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을 의미한다. 긴장완화(social relaxation)는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자극이나 비판에도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주장력(assertiveness)은 상대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입장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호작용관리(interaction management)는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고 끝맺는 능력, 대화 주제를 이끌어내는 능력, 상대와 협의하고 대화를 주고 받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타인지향(altercentrism)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우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표현력(expressiveness)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 자세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지(supportive communication) 능력은 권력 관계와 상관없이, 상대에 대해 평가적, 권위적, 전략적, 냉소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대신 설명적, 자발적, 문제해결적, 그리고 공감적이며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시성(immediacy)은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의미하는데, 종종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통제(environmental control)는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

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뜻한다[36][37].

갈등 커뮤니케이션 역량 또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종종 다루어졌던 커뮤니케이션 변수들이다[38]. 이 연구에서는 논쟁성(argumentativeness)/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veness) 및 갈등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쟁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하나이다[39]. 논쟁성(argumentativeness)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평가된다[40]. 한편 논쟁성과 비슷하지만 의사소통에 있어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을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veness)이라고 정의하며, 논쟁성과는 달리 비건설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평가된다[39]. 즉 똑같이 적극적(aggressive) 커뮤니케이션이지만, 공격의 대상이 상대방의 입장이냐 상대방의 인격이냐에 따라 논쟁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논쟁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우리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이 연구에서는 골드슈타인(1999)의 대인 갈등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하였는데, 특히 갈등 해소의 결과보다는 '과정(process)'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41], 한국적 상황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골드슈타인의 갈등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직접대면, 갈등접근/회피, 공적/사적 행동, 감정표현, 자기노출의 5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갈등접근/회피 항목은 논쟁성/언어적 공격성과 겹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직접대면, 공적/사적행동, 감정표현, 자기노출의 4개 차원만 사용하였다. 직접대면(confrontation)은 갈등 대상에게 직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 공적/사적 행동(public/private behavior)은 갈등 상황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거부감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갈등으로 인한 체면손상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감정표현(emotional expression)은 갈등 해소 과정에 있어 스스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가진 정보나 태도, 행동 등을 상대방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도를 뜻하며, 자기노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클수록 갈등해소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평가된다[41].

III.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인의 '우리성'은 어떠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성'을 구성하는 하부 차원은 각각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한국인의 '우리성'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커뮤니케이션 역량, 논쟁성/언어적 공격성,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성'의 차원은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V.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전문회사를 통해 할당표집한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남성이 271명(49.3%), 여성이 279명(50.7%)이었으며, 20대가 105명(19.1%), 30대가 100명(18.2%), 40대가 107명(19.5%), 50대가 121명(22%), 60대 이상이 117명(21.3%)이었다. 평균 연령은 44.7세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첫 번째 파트는 '한국적 집단주의(우리성)' 항목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보통이다(3)~매우 그렇다(5)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파트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변수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 논쟁성과 언어

적 공격성, 갈등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측정하였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우리성)의 각 하부 차원이 종속변수인 커뮤니케이션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성별(더미변수, 여성=1 남성=0)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우리성의 하부차원인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가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1 우리성(we-ness) 설문문항 개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성을 구성하는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문헌연구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우리성 및 한국적 집단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문항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우리성 척도로는 최상진과 최인재(2002), 양하이데(2014), 조윤경(2003)의 우리성 척도가 있으며[13][31][42], 또한 비교적 최근 한국인의 집단주의를 개념화하고자 했던 연구에서 활용된 개념적 정의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개념적 정의를 모두 포괄하고자 하였다[2][42-44]. 두 번째는 전문가 심층인터뷰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우리성과 한국적 집단주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문헌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문항 내용에 추가하였다. 이렇게 한국적 집단주의 관련 문항들을 총 망라한 후, 중복되는 개념의 문항들을 합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2.2 커뮤니케이션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척도는 루빈과 마틴(1994)의 척도로, 허경호(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기노출, 역지사지, 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타인지향, 표현력, 지지, 즉시성, 환경통제의 총 10개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차원을 사용하였다[36][37]. 각 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0.660, 0.692, 0.573, 0.666, 0.616, 0.595, 0.295, 0.375, 0.670, 0.645로 나타났다. 표현력 및 지지 차원의 신뢰도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론적으로 검증된 척도임을 고려하여 분석에 사용하되, 결과 해석에 주의하고자 하였다.

2.3 논쟁성과 언어적 공격성

이 연구에서 논쟁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인판테 외(1993)의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46]. 논쟁성의 신뢰도 계수는 0.726, 언어적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는 0.802로 나타났다.

2.4 갈등 커뮤니케이션(conflict communication)

갈등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골드슈타인(1999)의 척도를 연구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하였다[41]. 이 척도는 직접대면, 갈등접근/회피, 공적/사적 행동, 감정표현, 자기노출의 5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갈등접근/회피 항목은 논쟁성/언어적공격성과 겹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대면, 공적/사적 행동, 감정표현, 자기노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0.433, 0.759, 0.511, 0.553으로 나타났다. 직접대면의 신뢰도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론적으로 검증된 척도임을 고려하여 분석에 사용하되, 결과 해석에 주의하고자 하였다.

V. 연구결과

1. 연구문제1: 우리성(we-ness)의 요인분석

우리성(한국적 집단주의)의 요인구조를 탐색해보기 위해 표본(N=550)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총 115개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요인의 수와 요인별 측정 항목을 탐색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고, 문항 간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문헌 논의에 근거하여 사각회전의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선택하였다[47][48]. 요인의 수는 카이저(Kaiser)규칙과 스크리(scree) 검사의 기준에 의해 결정하였다. 1차 요인분석 결과 카이저규칙(아이겐밸류 1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19개의 요인으로, 총 59.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KMO=.924, 카이제곱=235357.369, 유의확률=.000 df=4465), 스크리도표(scree)와 문헌적 논의를

근거로 6개의 요인으로 추정하고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 추출값이 0.4 이하인 항목들을 제거한 후 남은 52개 항목에 대하여 3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 요인 분석 결과 총 50.2%의 변량을 설명하는 6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KMO=.920, 카이제곱=12174.184, 유의확률=.000 df=1326). 이에 각 요인별 구성문항을 살펴보고, 그 중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40 이하인 문항과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0.30 이상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0.40 이상이면 의미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2개 이상의 요인에서 .30 이상인 경우 어느 한 요인으로 분명하게 묶이지 않는 항목이라 판단되어 제거할 수 있다[47].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35개 문항으로 구성된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구한 결과,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은 각각 요인1이 .843, 요인2가 .795, 요인3이 .687, 요인4가 .793, 요인5가 .783, 요인6이 .817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내적일치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하위요인들의 문항 내용을 살펴본 결과, 요인1은 개인이 사회생활 혹은 개인생활을 함에 있어 집단에 소속됨으로서 누리게 되는 심리적지지, 안정감, 개인적 성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적 지지'라고 명명하였다. '심리적 지지' 요인은 전체 변량의 21.32%를 설명하였다. 요인2는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 연고중시, 편가르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이기주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11.32%를 설명하였다. 요인3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나 집단에 대한 실망 혹은 집단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 회의주의'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회의주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36%를 설명하였다. 요인4는 집단 내 구성원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심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희생'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성격적으로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집단 내 구성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배려로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개인희생' 요인은 전체변량의 5.0%를 설명하였다. 요인5는 사회생활 및 개인생활에 있어 다양한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표 1. 한국적 집단주의(우리성, we-ness)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부하
요인 1 : 심리적지지 (Cronbach alpha = 0.843)	
50.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낀다.	.735
49.나는 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699
47.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	.679
61.나는 우리 집단이 나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665
48.나는 나와 친한 사람들과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	.662
62.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586
66.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525
요인 2 : 집단이기주의 (Cronbach alpha= 0.795)	
102.나는 우리 집단이 아닌 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726
113.나는 우리편과 남의편을 가르는 편이다.	.719
94.우리 집단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하지 않다.	.705
114.나는 공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사적인 연고(학연, 지연, 다양한 사회적 인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695
103.나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643
요인 3 : 집단회의주의 (Cronbach alpha = 0.687)	
68.나처럼 내가 소속된 집단도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740
72.우리 집단 속에 있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 어차피 실망하기 마련이다.	.655
67.우리는 가까이 있으나 하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645
76.내가 사정이 있어도 집단과 함께 행동해야 할 때 부담스럽다.	.527
요인 4 : 개인희생 (Cronbach alpha = 0.793)	
2.나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든 일을 당한 적이 있다.	-.766
1.나는 지인이 부탁하면 어려운 부탁이라도 잘 거절하지 못한다.	-.747
4.나는 마음이 약하다.	-.742
3.나는 대인관계에서 손해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736
5.나는 지인들의 사정이나 형편을 잘 생각해주는 편이다.	-.611
7.나는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486
요인 5 : 집단지향 (Cronbach alpha = 0.783)	
20.나는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와 같은 단체 행사나 모임에 잘 참석하는 편이다.	.756
21.나는 회사, 팀 등을 이동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집단에 쉽게 적응한다.	.693
14.나는 혼자 일 하는 것 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613
107.비자발적인 집단 행사(동문회, 야유회, 체육대회, 전체회식 등)라도 사회생활을 위해서 꼭 참여한다.	.544
52.나는 혼자 있는 것 보다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499
18.나는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 팀과 같은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479
요인 6 : 정서적 친밀감 (Cronbach alpha = 0.817)	
74.나는 친한 사람과는 집안의 중요한 일까지도 서로 잘 알고 지낸다.	-.805
75.나는 친한 사람과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이 서로 이해된다.	-.787
82.우리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다.	-.564
56.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다.	-.504
79.친한 사이에서는 상대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고 상대방도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 주는 것 같다.	-.495
80.우리 집단의 구성원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고 도와준다.	-.469
77.우리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미운정 고운정 들었다.	-.464

선호하고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지향' 요인은 전체 변량의 3.26%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요인6은 집단 구성원들과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기초로 경험하는 정, 친밀감, 상부상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정서적 친밀감' 요인은 전체 변량의 2.99%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 최종 문항은 [표 1]과 같다.

2. 연구문제2: 우리성(we-ness)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적 집단주의인 우리성을 구성하는 하부 요인들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한국적 집단주의인 우리성에서 발견된 서로 상반된 차원의 집단주의 변수가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성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성별과 나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10개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집단주의 변수들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10개 요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집단주의 변수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커뮤니케이션 역량 변수는 즉시성(immediacy, R2=.348, p=.000)이었으며, 지지(R2=.228, p=.000)와 긴장완화(R2=.223, p=.000)에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주장력(R2=.094, p=.000)과 타인지향(R2=.082, p=.000)에는 집단주의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준화 계수를 통해 각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통제변수인 성별은 역지사지(std.β=.107, p≤.01), 즉시성(std.β=.142, p≤.001), 타인지향(std.β=.130, p≤.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은 주장력(std.β=.156, p≤.001)과 타인지향(std.β=-.135, p≤.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집단주의는 다른 어느 독립변수보다도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긍정적 집단주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10개 요인 중 타인지향을 제외한 9개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집단주의는 부정적 집단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즉시성(std.β=.574, p≤.001), 긴장완화(std.β=.473, p≤.001), 환경통제(std.β=.430, p≤.001), 지지(std.β=.423, p≤.001) 및 자기노출(std.β=.411, p≤.001)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정적 집단주의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역량 10개 요인 중 6개 요인, 즉 타인지향(std.β=.195, p≤.001), 지지(std.β=.179, p≤.001), 환경통제 (std.β=-.146, p≤.001), 표현력(std.β=.123, p≤.01), 자기노출(std.β=.108, p≤.01), 역지사지(std.β=.095, p≤.05)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타인지향을 제외하면 대체로 긍정적 집단주의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집단주의는 환경통제에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정적 집단주의 성향은 비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환경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우리성(we-ness)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		독립변수	
	성별	연령	긍정적 집단주의	부정적 집단주의
자기노출	.010	.000	.411***	.108**
역지사지	.107**	.001	.357***	.095*
긴장완화	.021	.021	.473***	-.025
주장력	-.029	.156***	.250***	.038
상호작용	.010	.072	.397***	.073
표현력	.010	-.004	.346***	.123**
지지	-.005	-.014	.423***	.179***
즉시성	.142***	.052	.574***	-.022
환경통제	.051	.039	.430***	-.146***
타인지향	.130**	-.135**	.035	.195***

(*p≤0.5, **p≤0.1, ***p≤.01)

다음으로 우리성이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성별과 나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가 논쟁성과 언어적 공격성 및 갈등커뮤니케이션

의 4개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리성은 모든 갈등 커뮤니케이션 변수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언어적 공격성(R2=.107, p=.000)과 자기노출(R2=.132, p=.000)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각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성별은 언어적 공격성(std.β=-.114, p≤.01)과 공적/사적 행동(std.β=-.143, p≤.01)에, 연령은 언어적 공격성(std.β=-.081, p≤.05), 감정표현(std.β=-.086, p≤.05) 및 자기노출(std.β=-.087, p≤.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가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영향력의 크기 뿐 아니라 영향력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적 집단주의의 경우 논쟁성(std.β=.250, p≤.001), 공적/사적 행동(std.β=-.148, p≤.001), 감정표현(std.β=.256, p≤.001)에 대해서는 부정적 집단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인 반면, 부정적 집단주의의 경우 언어적 공격성(std.β=.271, p≤.001), 직접대면(std.β=-.291, p≤.001) 및 자기노출(std.β=-.354, p≤.001)에 대해서는 긍정적 집단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긍정적 집단주의는 논쟁성, 직접대면, 감정표현, 자기노출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언어적 공격성, 공적/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이 변수들에 대한 부정적 집단주의의 영향력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3. 우리성(we-ness)이 논쟁성, 언어적 공격성 및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		독립변수	
	성별	연령	긍정적 집단주의	부정적 집단주의
논쟁성	-.054	.048	.250***	**-.141****
언어적 공격성	-.114**	-.081*	-.169***	.271***
직접대면	-.050	-.017	**.116****	-.291***
공적/사적 행동	-.143**	**-.061**	-.148***	.091*
감정표현	.048	-.086*	.256***	-.092*
자기노출	.003	-.087*	.107**	**-.354*****

(*p≤0.5, **p≤0.1, ***p≤.01)

VI. 토론

이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한국적 집단주의인 우리성(we-ness)을 구성하고 있는 하부차원과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우리성의 하부차원들이 커뮤니케이션 행위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를 구성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여섯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느껴지는 안정감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심리적지지', 내집단과 남을 철저히 구분하며 연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기주의', 집단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집단에 대한 한계와 회의를 느끼는 '집단회의주의', 마음 약한 성격 등으로 인해 집단 구성원들로부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집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개인희생', 친목회, 동호회, 단톡방 등 집단에 소속되어 집단 활동을 하는 것을 즐기는 '집단지향', 마지막으로 집단 구성원들과 허물없이 지내며 무슨 일이건 상부상조하고,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않는 '정서적 친밀감'의 여섯 개 차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밝혀진 집단주의의 여섯 개 차원을 내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집단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심리적지지, 집단지향,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 차원의 항목을 살펴보면, 집단주의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소속감을 통해 사회생활 속에서 든든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구성원들과의 상부상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도 받게 되고, 혼자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더 큰 즐거움과 성과를 얻게 되는 등 이 세 차원에서 집단주의는 개인의 공적/사적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반면, 집단이기주의, 집단회의주의, 그리고 개인희생은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내집단만 잘살면 그만이고 타 집단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이기적 태도, 물리적으로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나 아무런 유대감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집단이 부담스러워 집단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는 태도,

집단 속에서 타 구성원들과의 균형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희생하게 되는 태도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단주의가 반드시 좋은 영향만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부정적 집단주의의 경우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부정적 집단주의는 한국인들의 체면의식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내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 중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지나친 민감함, 자율적이기보다는 타율적인 태도 등은 한국인들의 사회적 체면 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49].

이렇듯 한국적 집단주의가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은 커뮤니케이션 변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가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긍정적 집단주의는 대체적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 집단주의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성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긍정적 집단주의는 부정적 집단주의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차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집단주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10개 차원 중 즉시성, 긴장완화, 환경통제, 지지, 자기노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중 지지, 즉시성 및 환경통제는 대화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해당된다. 즉 긍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방과 대화 상황에서 평등한 분위기, 친밀한 분위기,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며,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집단주의는 역지사지,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및 표현력에도 부정적 집단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부정적 집단주의의 경우 자기노출, 역지사지, 표현력, 지지, 환경통제 및 타인지향의 6개 차원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노출과 표현력은 대화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관련된 역량이며 역지사지와 지지는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상대를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즉 부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나 상대방에게 감정적 공감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부정적 집단주의의 경우 긍정적 집단주의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즉시성, 긴장완화, 환경통제 요인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방과 대화 상황에서 친밀한 분위기, 협력적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대화 상황으로부터 받는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평소의 대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복잡한 이슈나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성이 갈등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부정적 집단주의가 논쟁성/언어적 공격성 및 갈등 커뮤니케이션의 4개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는 논쟁성, 언어적 공격성 및 갈등 커뮤니케이션(직접대면, 공적/사적 행동, 감정표현, 자기노출)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성은 정확하게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집단주의는 논쟁성, 대립, 감정표현 및 자기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언어적 공격성, 공적/사적행동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부정적 집단주의는 논쟁성, 대립, 감정표현 및 자기 노출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언어적 공격성과 공적/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 집단주의는 논쟁성, 공적/사적 행동, 감정표현에 대해서는 부정적 집단주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언어적 공격성, 직접대면, 자기노출에 대해서는 부정적 집단주의가 긍정적 집단주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집단주의가 논쟁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언어적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긍정적 집단주의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부정적 집단주의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논쟁성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나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언어적 공격성은 반대로 문제가 되는 이슈와 관련 없이 상대의 인격 등을 언어적으로 모독하고 공격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생산적 논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반면, 부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를 언어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긍정적 집단주의는 건설적 갈등해소(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로 이어질 수 있으나 부정적 집단주의는 비건설적 갈등해소(de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가 갈등 커뮤니케이션의 4개 전략 - 직접대면, 공적/사적 행동, 감정표현 및 자기노출 - 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성을 살펴보면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부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긍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직접대면), 공적인(열린) 상황에서 갈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 (공적/사적 행동),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감정표현), 자신의 정보나 태도를 공유하는 것(자기노출)에 대해 거부감이 약한 반면, 부정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와 같은 행동을 오히려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를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체면 의식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비슷하며[16][49], 갈등 해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적 집단주의 성향인 우리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나 갈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일상 속에서 집단주의가 가지는 이와 같은 이중적 측면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다.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는 개인이 갖는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사람에게서도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 집단주의가,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 집단주의가 발현되기도 한다.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이 가진 긍정적 집단주의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집단주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생과 협력, 사회적 갈등 해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긍정적 집단주의가 발현되며 어떤 경우에 부정적 집단주의가 발현되는가? 한국인의 집단주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context) 변수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김경동, *한국사회변동,* 서울: 나남, 1993.

[2]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서울: 생각의나무, 2007.

[3]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4] G.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y Hills, CA: Sage, 1984.

[5] M. S. Kim, *Non-Western perspective on Human Communication,* Thousand Oaks: Sage, 2002.

[6] R. Merk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patterns: Korean and American Communication,"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20, pp.5-15, 2009.

[7] G. Jenkins, D. Klopf, and M. Park, "Argumentativeness in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A comparison,"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Jyvaskyla, Finland, 1991.

[8] E. Yook and B. Ahn, "Comparison of apprehension about communication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89, pp.161-164, 1999.

[9] Y. Song, "A comparison of organizational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ICA, New Orleans, 2004.

[10] D. Klopf and M. Park, "Korean communication practices: Comparative research," Korea Journal, Vol.32, No.1, pp.93-99, 1992.

[11] Y. Shim, M. S. Kim, and J. Martin, *Changing Korea: Understanding culture and communication,* London: Peter Lang, 2008.

[12] 유민봉, 심형인,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합의이론을 통한 범주의 발견,"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제19권, 제3호, pp.457-485, 2013.

[13] 양하이데, "조직 '우리성'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1호, pp.73-105, 2014.

[14] 박통희, "정, 가족주의 그리고 대인간 신뢰: 한국 중앙정부의 사례,"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pp.23-45, 2004.

[15] Y. Kim and J. Yang, "The influence of Chemyon on facework and conflict tyles: Searching for the Korean face and its impact," Public Relations Review, Vol.37, pp.60-67, 2011.

[16] Y. Kim and J. Yang, "Impact of Chemyeon on Koreans' verbal aggressiveness and argumentativeness," Korea Journal, Vol.53, No.3, pp.48-77, 2013.

[17] 한규석, 신수진,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pp.293-310, 1999.

[18] H. Triandis and M. Gelfand,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No.1, pp.118-128, 1998.

[19] 찐언쉐,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서울: 우석출판사, 2000.

[20] 김호정, "갈등유형과 갈등관리방식의 관계,"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제2호, pp.111-140, 2011.

[21] H. Triandi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1995.

[22] 정태연,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제24권, 제3호, pp.53-76, 2010.

[23] D. Oyserman, H. Coon, and M. Kemmelmeier,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8, No.1, pp.3-72, 2002.

[24] T. Lim, S. Kim, and J. Kim, "Holism: A missing link in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Vol.40, No.1, pp.21-38, 2011.

[25] 정영태, "동아시아 집단주의에 대한 연구 동향: 일본, 대만, 서구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1권, pp.691-718, 2013.

[26] D. Oyserman,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Cultural mindsets, cultural fluency, and meaning making,"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22, No.1, pp.164-214, 2011.

[27] M. Brewer and Y. Chen, "Where(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Vol.114, pp.133-151, 2007.

[28] 김영욱,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9]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암사, 1994.

[30]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와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31] 최상진, 최인재,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1호, pp.55-71, 2002.

[32] H. R. Markus and S. Kitayam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98, pp.224-253, 1991.

[33] 최인재, *정, 우리성, 체면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4] M. S. Kim,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Asia: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20, No.2, pp.166-180, 2010.

[35] J. M. Wiemann, "Explication and test of a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3, pp.195-213,

1977.
[36] R. Rubin and M. Martin,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11 No.1, pp.33-44, 1994.
[37]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6호, pp.380-408, 2003.
[38] S. Ting-Toomey and J. G. Oetzel, *Managing intercultural conflict effectively,* Sage: London, 2001.
[39] A. Rancer and T. Atvgis, *Argumentative and aggressive communi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Sage: Thousand Oaks, CA, 2006.
[40] D. Infante and A. Rancer, "A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 of argumenta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6, pp.72-80, 1996.
[41] S. B. Goldstein,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conflict communication scal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9, No.9, pp.1803-1832, 1999.
[42] 조윤경,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1호, pp.91-109, 2003.
[43] 김용신, *심리학, 한국인을 만나다,* 서울:시담, 2010.
[44] 권수영 외 공저,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21세기북스, 2016.
[45] 김문조 외 공저, *한국인은 누구인가,* 서울:21세기북스, 2013.
[46] D. A. Infante, C. M. Aderson, M. M. Martin, A. D. Herrington, and J. Kim, "Subordinates'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superiors' compliance-gaining tactics, argumentativeness, verbal aggressiveness and style,"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Vol.6, pp.307-326, 1993.
[47] A. Field,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Sage: Thousand Oaks, CA, 2003.
[48] 노형진, *SPSS를 위한 주성분분석과 요인분석,* 서울: 한울출판사, 2014.
[49] T. Lim and S. Choi,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Korea," in W. Gudykunst, S.Ting-Toomey and Nishida (eds.),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cultures, Sage: Thousand Oaks, CA, 1996.

저 자 소 개

양 정 은(Jungeun Yang) 정회원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9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홍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평택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문화간커뮤니케이션, 대인커뮤니케이션, 위험커뮤니케이션, 세대간커뮤니케이션